

2024년 11월 19일 대전세종충남 2024-11-4호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월 20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 
11월 19일 17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2024년 「대전·세종·충남 지역경제세미나」 개최 결과

-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(본부장 김인구)는 11월 19일(화) 대전광역시, 대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“지역 인력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”라는 주제로 2024년 「대전·세종·충남 지역경제세미나」를 개최
  -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주최
  - 2가지 주제발표\*와 함께 각 발표별 패넬토론이 진행됨

- \* ①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전략(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  
② 대전·세종의 노동시장 현황과 상생 전략(김기희 대전학연구회 소장)

-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당면과제와 지역별 대응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,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

붙 임 : 1. 2024년 「대전·세종·충남 지역경제세미나」 개요 1부.  
2. 세미나 주요 내용 1부. 끝.

※ 본 세미나의 발표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, 대전광역시, 대전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.

문의처 :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장승연 팀장, 이승엽 과장

Tel : (042)601-1210, 1216 Fax : 601-1224 E-mail : bokdaejeonpfr@bok.or.kr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##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

(붙임 1)

## 2024년 「대전·세종·충남 지역경제세미나」 개요 (대전광역시, 대전상공회의소,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공동 개최)

- 일 시 : 2024년 11월 19일(화), 오후 2:00~4:00
- 장 소 :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, 5층 대강당

시간	세부 내용
14:00~14:20 (20분)	<b>개회사 및 축사, 기념촬영</b>  김인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장호종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
<b>Session I</b> 14:20~15:05 (45분)	<b>■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전략</b> 사회 : 김형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표 :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: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분석팀장 최선영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
15:05~15:15 (10분)	<b>휴 식</b>
<b>Session II</b> 15:15~16:00 (45분)	<b>■ 대전·세종의 노동시장 현황과 상생 전략</b> 사회 : 김형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발표 : 김기희 대전학연구회 소장 (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) 토론 : 권경민 대전광역시 경제국장 박종훈 국립한밭대학교 경제학과장
16:00	<b>폐 회</b>

(붙임 2)

## 세미나 주요 내용

### (제1주제)

□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이 「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고용전략」을 주제로 발표

○ 이 위원은 저출생·고령화 시대에 지역별 인구구조 변동과 이에 따른 지역간 노동시장 격차를 살펴보고, 이민자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분석

○ 이어서, 지역 불균형, 노인 빈곤, 낮은 인적자본(여성, 청년 등) 활용도,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지역의 일자리 당면 과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역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,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\*을 제시

\* 정책의 지역별 유연성 확대, 정책의 분권화, 지자체의 역량 강화 등

— 특히, 지역의 일자리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접근, 지역 공동체 자산화 구축(CWB 모델\*), 지역 인프라 혁신, 지역 이민자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

\* Community Wealth Building(CWB) 모델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초점을 둔 경제 개발 전략으로 공정한 노동, 지역금융, 토지와 자산의 공정한 이용 등의 요소를 포함

□ 패널토론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일부 잠식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의 구조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 동의하는 한편, 지역 청년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

## (제2주제)

□ 대전학연구회 김기희 소장이 「대전·세종의 노동시장 현황과 상생 전략」을 주제로 발표

- 김 소장은 대전·세종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면서 두 도시의 생활경제권이 통합·단일화되어 가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, 대전은 전체 신규구인배율\*이 매우 낮고, 세종은 산업인력의 지역자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

\* 신규구인배율 = 신규구인인원 ÷ 신규구직건수

- 이어서, 대전·세종 간 산업의 상호 보완·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분업체계에 의한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할 있는 전략방안들\*을 제시

\* ① 산업육성과 인력양성의 연계성 강화

②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한 산업·직종의 공동 대응

③ 인력양성 교육훈련기관(대학 등) 및 지원기관(인적자원개발위 등) 네트워크 강화

④ 기업 참여 산학협력 인력양성

⑤ 실업자 재취업과 현장인력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인력 양성

□ 패널토론에서는 지역내 인구유출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(대전광역시)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층 등 인적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, 대전·세종 간 생활경제권 확대에 따른 정책 필요사항 등을 논의